

한 영혼을 사랑하시는

* 2/24(수) ⑥ 누가복음 15-18장

1-8장 그리스도인의 품격

- 1-2장 기쁨의 노래로
- 3-5장 놀라움에 사로잡혀
- 6-8장 오직 믿음으로

9-18장 그리스도인의 체험

- 9-11장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
- 12-14장 진리를 알려주시는
- ▶ 15-18장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
예수와 만난 사람들

19-24장 그리스도인의 생활

- 19-21장 차가운 머리로
- 22-24장 뜨거운 가슴으로

Before 즐치며 읽기

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
한 영혼이 누구인지
표시하며 통독해 보십시오.

After 묵상하기

내가 사랑해야 하는
한 영혼은
누구입니까?

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께 나아옵니다.
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.

“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,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.”

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(마 7:3-4, 눅 6:41).
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.

남을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
모릅니다. 외식하는 사람은 들보를 빼기까지 밝히 볼 수 없습니다
(마 7:5, 눅 6:42).

허나, 위선적인 사람들의 정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

눅 15: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
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
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

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찾으시는 존재가 있습니다.

일백이라는 ‘전체’를 완성할 수 있는 퍼즐 한 조각과도 같습니다.

죄인입니다(마 9:13, 막 2:17, 눅 5:32). 바로, ‘나’입니다.
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,
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(롬 5:8).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.

참고도서

- HOW주석
- IVP성경배경주석
- LAB주석
- WBC주석
-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
- 통성경 길라잡이
- 하루만에 꿰뚫는 성경관통

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죄인의 마음을
아시는 주님(7:37-50).

‘주여, 저를 붙잡히 여기서소서. 저는 죄인입니다.’

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드리는 세리의 기도를
들으시는 주님(18:13-14).

주님의 시선은 ‘한’ 죄인에게, ‘나’에게 머물렀다.

‘하나’의 무게와 ‘아흔아홉’의 무게를 비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?
양우리 안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 양의 안전에 비교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?
‘하나’의 가치가 ‘아흔아홉’에게는 아무런 상관이나 존재가치가 없는 미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

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.

눅 15: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

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것을 발견하면
어깨에 메고, 양 떼로 돌아와 기뻐하십니다.

한 가정주부는 자신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자 친구들을 불러 기쁨을 나눕니다(15:8-9).
한 아버지는 ‘제일 좋은 옷’과 ‘가락지’와 ‘신발’로 ‘아들’로서의 명예를 인정합니다(15:22-24).
귀중한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.
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.

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.

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‘그 마음이 내 안에’ 있습니까?

인간은 불완전합니다. 불완전한 여럿이 함께 불완전한 관계를 형성합니다.
서로서로 실족케 하기도 합니다.
예수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(17:1).

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.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.
그런 일이 있게 ‘하는’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.
남을 실족하게 한 후 주님과 마주하기보다 차라리
연자뱃들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하십니다(17:2).
형벌이 엄중합니다. 끔찍한 죽음입니다.
실족하게 하는 죄는 중대하고 무겁습니다(마 5:29-30).

작은 자 중의 ‘하나’를 향한 나의 마음을 눈여겨보십시오.

만일 지금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있다면 속히 죄에서 돌이키십시오.
위선의 가면을 벗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.
‘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(시 51:9).’
죄를 돌이키는 자에게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(겔 18:21-22, 30절).

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은 ‘누구’입니까?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?